

#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만든다

### 전주시 덕진구, 하반기 교량·육교 등 도로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주요 간선도로 노후 구간 정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한병삼)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교량·육교 등 도로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노후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되는 도로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은 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교량과 육교,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구는 총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법정관리 시설물 68개소를 포함해

총 93개소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갖춘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교량 78개소(1종 시설물 6개소, 2종 시설물 13개소, 3종 시설물 40개소, 비법정교량 19개소)와 육교 8개소, 지하보·차도 5개소, 터널 및 옹벽 각 1개소 등이다.

구는 시설물의 균열, 변형, 손상 여부 등 주요 구조적 안전성을 중점 점검한 후,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는 즉시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적극 확보해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울러 구는 지난 상반기 안전 점검을 마친 진북교와 소양교를 비롯한 21개 교량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고, 동절기 폭설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면 및 보도 포장 상태, 배수시설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순찰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구는 도로 노후화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이전까지 시비 12억 원을 투입해 송천중앙로 등 9개 노선에 대한 노후 구간 재포장 공

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구는 올 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시비 7억 원을 투입해 통행량이 많은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등 덕진구 7개 주요 간선도로의 노면 불량구간 8.76km를 재포장했다.

한병삼 덕진구청장은 "도로시설물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정기 안전 점검 및 도로 정비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올 연말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수상을 기념하는 작품 전시를 진행한다.

##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 작품 전시

###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수상 기념 12월 말까지 진행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올 연말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수상을 기념하는 작품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작가의 주요 저서들이 매진되거나 도서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작가의 주요 작품과 작가의 삶에 대해 알아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 공간에서는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서 발췌한 문장들로 만든 엽서도 마련돼 있으며, 직접 필사해 볼 수 있는 참여 공간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2016년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 △2017년 말라파

르테 문학상을 수상한 '소년이 온다' △2023년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한 '작별하지 않는다' 등 17종의 작품이 소개된다.

또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성기석 인문공간 파사주 대표와 함께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독서토론인 '한강 함께 읽기' 프로그램도 총 5회에 걸쳐 운영된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숨은 독자들이 많아진 것은 도서관으로서 아주 기쁜 일"이라며 "기념 전시 및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의 문학을 경험하고 깊은 여운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치매예방교육 나서

### 효율적 운영 위해 치매 바로 알기·치매관리사업 안내 등 실시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효율적인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위해 지난 21일 전주시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평화1동·진북동·평화2동·조촌동·삼천1동 5개 치매안심마을의 운영 위원들이 참여한 이날 교육은 △치매 바로 알기(치매의 정의, 증상, 사례) △치매 예방수칙 및 관리 방법, 치매 파트너 교육 △전주시 치매관리사업 안내 등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각 치매안심마을의 리더 역할을 수행 중인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는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진 지역사회 민간기관·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8~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치매안심마을 관련 사업과 치매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며 마을을 이끌고 있다.

이들은 또 전주시보건소와 함께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등 지역사회 치매 극복을 위해 공동협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전하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현재 치매환자 실종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을 위해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또 치매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예방 교육 △치매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치매 예방 교실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등도 전개하고 있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교



전주시보건소는 효율적인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위해 지난 21일 전주시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 친화적인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데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치매환자

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50+ 세대 22명, '완주에서 3일 살기' 체험

전주시와 완주군은 50+세대의 인생 후반기 설계와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완주에서 3일 살기+농가 일손돕기'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 시군이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연장선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50+세대 2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완주군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농장견학 △사계별표 △문화 체험 △농가 일손돕기 △생태탐방 등을 체험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50+ 세대들은 실제 귀농·귀촌에 대한 호기심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완주에서 3일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50+커뮤니티는 향후 꾸준히 전주시·완주군간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상호 지역 행사나



일손을 돕는 일들을 함께 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3일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은 "가까운 지역이라 자주 오가지만, 이번에 깊이 있게 완주를 들여다

본 것 같다"면서 "완주군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मी 전주시 평생학습관장은 "이번 완주에서 3일 살기를 통해 50+세대들이 인접해 있는 완주군의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계 인구 형성에 상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완주군과 협력해서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전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접한 지역간 상생의 물결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북대병원, 보건노조와 임단협 잠정 합의... 임금 2.5% 인상

전북대학교병원은 노사 분규없이 원만하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이뤄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와 2024년 임금 단체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북대병원 노사는 지난 21일 본관 3층 은고을홀에서 양종철 병원장과 김종우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홍수정 전북지역본부장, 김진아 전북대병원 지부장, 이경순 전대병원 부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노조가 필수인력 총원 등을 요구하며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것과 대조적으로, 파업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원만한 결론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대비 2.5% 인상 △직급보조비 및 급식보조비 월 1만2000원 인상 △단시간 근무자 시급 1.7% 인상 △감정 노동 휴가 1일 추가 △플 대기 수당 미 지급 부서 풀 수당 5만원 지급 △시간외 근무 15분 단위 인정 △야간 누적 특별 휴가 20일 당 1일 부여 등 근로 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양보와 타협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28일부터 30일까지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 된다. /뉴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 내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 관풍각

###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